

3경기 풀타임 조용형 “확실”

평가전 출전시간으로 본 허정무호 국내파 ‘베스트 11’

김정우·박주호·염기훈도 눈도장... 이동국은 ‘불확실’

축구대표팀이 2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라트비아와 친선경기를 끝으로 새해 첫 전지훈련을 마무리하면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중용될 국내파 선수들의 윤곽도 확연히 드러났다.

소집 초기인 남아공에서는 선수들의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지만, 스페인에서는 이번 전훈 참가 멤버 24명 중 정예로 두 차례 친선경기를 치렀다.

남아공에서 가진 프리킥과 두 차례 연습경기를 제외하고 잠비아, 핀란드, 라트비아 등과 A매치 세 경기의 출전 시간도 확보했다. 허정무호는 이번 전훈 참가 멤버 24명 중 정예로 두 차례 친선경기를 치렀다.

남아공에서 가진 프리킥과 두 차례 연습경기를 제외하고 잠비아, 핀란드, 라트비아 등과 A매치 세 경기의 출전 시간도 확보했다. 허정무호는 이번 전훈 참가 멤버 24명 중 정예로 두 차례 친선경기를 치렀다.

(수원), 양백 박주호(가시마), 공격수 염기훈(울산) 등 네 명이다.

이문재는 대표팀 부동의 골키퍼이고, 염기훈과 강민수도 꾸준히 출전 기회를 잡고 있다. 박주호는 지난 18일 핀란드와 경기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뒤 두 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을 펼치며 허정무 감독의 신뢰를 쌓고 있다.

허 감독이 정예 멤버로 지르겠다고 한 핀란드, 라트비아와 경기 모두 풀타임을 뒀던 박주호를 비롯한 조용형과 염기훈 등 세 명뿐이다.

또 다른 수비수 중에서는 세 경기 모두 선발 출전한 중앙수비수 이정수(가시마)와 두 경기에서 선발로 나선 오른쪽 풀백 오범석(울산)이 경쟁에서 한 발짝 앞선 모습이다. 중앙 미드필더에서는 역시 세 경기 모두 선발 출전한 김정우(광주)의 월드컵 최종 엔트리 합류가 확실시된다. 김정우는 미드필더 중 가장 많은 235분을 뛰었다.

세 경기 모두 선발 출전했고 핀란드와

축구대표 새해 첫 전훈 중 A매치 출전시간

구분	선수	시간
GK	이문재(수원)	180
	김영광(울산)	0
	정성환(성남)	90
	조용형(제주)	270
	김형일(포항)	0
DF	강민수(수원)	185
	오범석(울산)	165
	이규로(전남)	60
	최철순(전북)	90
	이정수(가시마)	220
	김근환(요코하마)	0
	박주호(이와테)	180
	김정우(광주)	235
MF	이승현(부산)	14
	김재성(포항)	121
	김보경(충청대)	81
	신형민(포항)	96
	구지철(제주)	110
	이승철(서울)	28
FW	김두현(수원)	153
	염기훈(울산)	225
	김신욱(울산)	74
	노병준(포항)	197
	이동국(전북)	196

경기에서는 허정무호 합류 이후 처음으로 풀타임을 뒀던 이동국(전북)은 출전 기회를 계속 얻었지만 아직 허 감독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지 못한 상황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가운데)이 2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첼시와 홈경기에서 상대 수비수 틸에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모처럼 풀타임...이청용 5호 도움

루니 4골 맨유, 첼시 4-0 대파... 불타는 FA컵 16강 올라

국가대표 공격수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22·볼턴 원더러스)이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나란히 풀타임 활약을 펼쳤다.

박지성은 24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09-2010 정규리그 첼시와 홈경기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면서 맨유의 승리를 도왔다.

맨유는 웨인 루니가 혼자 4골을 몰아쳐 첼시를 4-0으로 완파했다. 맨유는 승점 50점으로 아스널, 첼시(이상 승점 48)를 제치고 단독선두로 올라갔고 루니는 시즌 19호 골

로 득점 부문 선두를 질주했다. 박지성은 최근 2경기에서 벤치를 지켰다. 하지만 매 경기 출전한 것처럼 2선에서 가벼운 몸놀림을 보이며 투톱으로 나선 루니와 마이클 오언 투톱의 공격을 도왔다.

맨유 선취골의 출발점은 박지성이었다. 박지성은 전반 8분 왼쪽을 돌파한 뒤 폴 스코스에 공을 찰려치고 스코스의 대포구 같은 중거리 슈팅이 상대 골키퍼를 맞고 튀어나오자 루니가 달려들면서 선취골을 뽑았다.

박지성은 1-0으로 앞선 전반 13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 침투해 대런 플라처의 크로스를 헤딩했으나 수비수와 얽혀 넘어지는 바

라페 공이 골문을 벗어났다. 전반 27분에는 페널티지역 외곽에서 문전 혼전에서 흘러나온 볼을 강하게 슈팅했으나 수비수의 몸에 맞고 튀어나왔다.

프리미어리그 볼턴 원더러스에서 뛰는 이청용도 이날 리버풀스타디움에서 열린 FA컵 32강전에서 썩어골을 어시스트하며 2-0 승리를 도왔다. 볼턴은 이날 승리로 FA컵 16강에 올랐고 이청용은 시즌 5호 어시스트이자 개인통산 9번째 공격포인트(4골 5도움)를 기록했다.

이청용은 1-0으로 앞선 후반 39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으로 패스를 전달해 요한 엘만더의 골을 이끌어냈다. 지난 21일 아스널과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이끌어낸 데 이는 두 경기 연속 공격포인트였다. /연합뉴스

허정무 “3월 코트디부아르전 멤버가 월드컵 엔트리”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오는 3월3일 코트디부아르와 친선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컵 개최국 남아공과 스페인에서 새해 첫 전지훈련을 지휘한 허 감독은 귀국 전날인 24일(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마르베야의 대표팀 숙소에서 이번 전훈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 멤버가 사실상 최종 엔트리=대표팀은 오는 3월3일 A매치 데이에 영국 런던에서 남아공 월드컵 본선 진출국인 아프리카 신공 강호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을 치른다.

일단 허 감독은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의 월드컵 본선 진출국 중 최강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나이지리아를 대비한 전술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허 감독은 코트디부아르와 경기를 위해 구성할 대표팀이 사실상 월드컵 본선에 나설 대표팀이 될 것임은 부인하지 않았다. 최종 엔트리 발표 시기는 이르런

4월 말이 될 전망이다.

▲최종 엔트리 선발 기준은 ‘국제무대 경쟁력’=그렇다면 허 감독의 최종 엔트리 선발 기준은 무엇일까? 허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 가면 누가 더 잘 할 것인가”라고 잘라 말했다. 허 감독은 이어 “국내에서는 잘 하지만 국제 경기에서는 그렇지 못한 선수가 있다”면서 “누가 대표팀에 도움이 되고, 어느 선수가 월드컵 본선 같은 큰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눈을여겨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아공 월드컵 로드맵 완성=허 감독은 대표팀의 구체적인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대표팀은 오는 30일 목포 국제축구센터에 재소집되고, 다음달 6일 도쿄에서 개막하는 동아시아연맹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3월31일에는 런던에서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5월 21일 시모어 최종 담금질에 들어가며, 결선지 남아공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네 차례 더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다. /연합뉴스

허 감독은 우선 5월16일 남미 팀과 평가전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했다. 허 감독은 “5월24일에는 일본과 평가전도 추진 중이다. 경기를 치르고 다음날 오스트리아로 떠나 훈련을 이어가면서 5월30일 유럽팀과 친선경기를 치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성 결승골’ 라트비아에 1-0 승

한국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상대인 그리스를 대비한 모의고사에서 승전가를 부르며 자신감을 충전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3일(한국시간) 스페인 남부 말라가의 에스타디오 시우다드 데 말라가에서 열린 라트비아와 친선경기에서 후반 10분에 터진 김재성의 선제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FIFA “기성용은 한국의 제라드” 칭찬

국제축구연맹(FIFA)이 23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기성용(21·셀틱)을 ‘한국의 제라드’로 표현하는 기사를 실었다.

FIFA는 이 기사에서 “기성용이 김주성, 홍명보, 이문재, 이동국, 박지성, 박주영 등처럼 월드컵이 끝난 뒤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며 “12세 이하 대표팀에 선발됐지만 13세 때부터 호주 유학을 택했다”며 어린 시절을 소개했다. 이 기사는 24일 생일을 맞게 된 기성용을 조명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박지성과 한솔밥’ 니스텔로이

레알 떠나 함부르크로 이적

PSV 에인트호벤(네덜란드)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에서 박지성(맨유)과 한솔밥을 먹었던 네덜란드 축구스타 윌트 판 니스텔로이(34·사프카)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벗고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SV에 새 등지를 들었다.

함부르크 구단은 24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니스텔로이와 2011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단 한변이수강으로 내 인생이 성공한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자나온 과거 여정이나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능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방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낮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관? 우주의 천시를 풀이한 귀곡사주 시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복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부합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가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초급	32부터 매주 화요일(15주)	(주)14-17시 (화)19-22시	150000원	230-7700-3
평생교육원	관상학·심화	35부터 매주 금요일(15주)	(화)19-22시		
동강대학교	사주명리학·초급	3.10부터 매주 수요일(15주)	(화)19-21시	10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심화	3.11부터 매주 목요일(15주)	(화)19-21시		

등록안내 조선대·조기등록 1.20~1.29까지 등록시 해당수강료 10%감면
정기등록 2.1~2.19까지, 동강대 정기등록 1.25~2.27까지

등록방법 해당기관 직접방문이나 전화등록 후 공휴일 당일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1-644-7232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촌, 과수원·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장이에서 배송할때도~ 창고에도~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기차 5년 균등 분할 상환)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용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무공해 친환경 전기엔진을 사용합니다.
- 비 전기로 약 5,000원 정도 더 부담이 적음.
- 최신식 6배속 사륜차로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엔제 어디서나 편리한 A/S
- 부속의 4시간을 1인칭으로 A/S가 가능합니다.

장기저리 농업용자를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판매가의 90% 상거래보증, 1년 기차 5년 상환, 연리 3%
- 즉석시 408kg(1차세대 200kg)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자금** 가능

한라셀텍(주) H-P 010-9468-3282

해령법률경매 사원모집중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법원정문앞

대표·성 불규 (법원등록번호 16-07-29)
- 전. 02)430-7117 (법원등록번호 16-07-29)
- 전. 02)430-7117 (법원등록번호 16-07-29)
- 전. 02)430-7117 (법원등록번호 16-07-29)
- 전. 02)430-7117 (법원등록번호 16-07-29)

군민주택 (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주	동구	297/827	1277㎡	7914	4세대
	서구	188/248	891㎡	4500	1세대
	북구	417/224	1691㎡	4270	1세대
	남구	1470/243	3756㎡	12230	1세대
전남	남원시	172/304	331㎡	1941	1세대
	광양시	101/78	150㎡	191	1세대
	함양군	1878/361	450㎡	2500	2세대
	영광군	373/317	431㎡	2340	2세대

군민주택 (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주	동구	536/583	1277㎡	7914	4세대
	서구	320/1188	1691㎡	4270	1세대
	북구	417/224	1691㎡	4270	1세대
	남구	284/828	721	4500	1세대
전남	남원시	380/798	530㎡	3000	1세대
	광양시	411/047	495㎡	2570	1세대
	함양군	680/1159	495㎡	2570	1세대
	영광군	985/678	495㎡	1950	1세대
전남	광양시	182/485	451㎡	2350	1세대
	함양군	70/714	451㎡	2350	1세대
	영광군	1035/292	150㎡	9540	1세대
	영광군	2380/303	191	721	1세대

군민주택 (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주	동구	81/228	228㎡	1140	1세대
	서구	43/153	153㎡	765	1세대
	북구	61/38	450㎡	225	1세대
	남구	182/202	202㎡	1010	1세대
전남	남원시	35/15	235㎡	1175	1세대
	광양시	25/18	451	2255	1세대
	함양군	6/3	451	2255	1세대
	영광군	88/22	825㎡	391	1세대

군민주택 (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주	동구	865/114	1141	5705	1세대
	서구	485/178	2282	1141	1세대
	북구	139/128	1500	750	1세대
	남구	117/258	1500	750	1세대
전남	남원시	680/1159	495㎡	2570	1세대
	광양시	132/78	691㎡	3455	1세대
	함양군	254/164	1950	975	1세대
	영광군	781/234	320㎡	1600	1세대
전남	남원시	1035/292	150㎡	750	1세대
	광양시	307/152	451㎡	2255	1세대
	함양군	1385/140	451㎡	2255	1세대
	영광군	384/238	451㎡	2255	1세대
전남	광양시	680/1159	495㎡	2570	1세대
	함양군	486/74	243㎡	1215	1세대
	영광군	221/88	1950	975	1세대
	영광군	881/186	1950	975	1세대
전남	남원시	51/474	1141	5705	1세대
	광양시	688/148	451㎡	2255	1세대
	함양군	255/56	451㎡	2255	1세대
	영광군	653/77	191㎡	955	1세대

군민주택 (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대가	비고
광주	동구	1555/4	191㎡	955	1세대
	서구	862	427	2135	1세대
	북구	1481	191	955	1세대
	남구	1711	2282	1141	1세대
전남	남원시	1048	524	2620	1세대
	광양시	3104	955	4775	1세대
	함양군	55	191	955	1세대
	영광군	157	765	3825	1세대
전남	남원시	1885	955	4775	1세대
	광양시	5986	955	4775	1세대
	함양군	1673	821	4105	1세대
	영광군	2005	955	4775	1세대
전남	남원시	1955	955	4775	1세대
	광양시	398	191	955	1세대
	함양군	12188	61	305	1세대
	영광군	2750	451	2255	1세대
전남	남원시	1041	524	2620	1세대
	광양시	9559	955	4775	1세대
	함양군	4838	191	955	1세대
	영광군	357	381	1905	1세대
전남	남원시	2631	1315	6575	1세대
	광양시	8946	765	3825	1세대
	함양군	674	331	1655	1세대
	영광군	438	228	1140	1세대
전남	남원시	273	1365	6825	1세대
	광양시	489	391	1955	1세대
	함양군	338	191	955	1세대
	영광군	2075	955	4775	1세대
전남	남원시	172	855	4275	1세대
	광양시	298	765	3825	1세대
	함양군	258	191	955	1세대
	영광군	238	191	955	1세대
전남	남원시	1041	524	2620	1세대
	광양시	9559	955	4775	1세대
	함양군	4838	191	955	1세대
	영광군	357	381	1905	1세대
전남	남원시	2631	1315	6575	1세대
	광양시	8946	765	3825	1세대
	함양군	674	331	1655	1세대
	영광군	438	228	1140	1세대
전남	남원시	273	1365	6825	1세대
	광양시	489	391	1955	1세대
	함양군	338	191	955	1세대
	영광군	2075	955	4775	1세대
전남	남원시	172	855	4275	1세대
	광양시	298	765	3825	1세대
	함양군	258	191	955	1세대
	영광군	238	191		